

'무형유산 창의공방 입주' 도록 발간

국립무형유산원, 전통 기술 이수자 5명 창작품 13종 소개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2022년 '무형유산 창의공방 입주' 사업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도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의공방'은 전통 기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승자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입주(레지던시, Residency) 프로그램으로, 매년 초 공고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모집한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이수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 일정기간 머물며 교육과 자문을 받고, 재료비

를 지원받아 개인 및 협업으로 창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올해는 △누비장 '이순협', '최미정' △매듭장 '허희진' △사기장 '이술찬' △염색장 '정찬희' 총 5명의 이수자가 참가,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서로 교류하며 개인작품 10종, 협업작품 3종 등 총 13종의 창작품을 완성했다. 무형유산 창의공방의 주제는 'PRO-POSE(전문가의 제안)'로, 전문가라는 의미의 Pro와, 제안

하더라도 의미의 Pos을 합성해 무형유산 전문가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과 그 속에 함께하는 작품을 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전통적 요소, 한국적 정서를 현대에 새롭게 선보이고자 한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2022년 '무형유산 창의공방 입주'의 활동상과 창작품이 소개된 도록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www.ita.go.kr)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기술 분야 전승자의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전통공예의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최북미술관-부채문화관 교류전 '묵향 담은 부채'

내년 1월 15일까지 무주 최북미술관에서 6명 작가 14점 작품 전시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수준 높은 부채 콜라보 작품을 청정무주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무주최북미술관과 전주부채문화관이 같은 기간 전시회를 갖고 문화교류의 물꼬를 터 더욱 의미가 높다. 무주군은 1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총 46일 동안 최북미술관-부채문화관 교류전인 '묵향 담은 부채' 전시회를 갖는다. 전주부채문화관이 소장한 작품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한국화가 남천 송수남, 김상철, 하수정, 유대수와 부채 무형문화재 김동식, 방화선 선자장(부채를 만드는 기술과 기능을 가진 사람) 등이 제작한 작품 14점을 전시한다. 고(故) 남천 송수남 작가는 수묵의 현대적 조형성을 탐구한 한국의 대표 작가다. 김상철 작가는 우리 선조의 풍류를 느낄 수 있고 부채 안에 그려진 한국화와 함께 감상하는 즐거움



무주군은 1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총 46일 동안 최북미술관-부채문화관 교류전인 '묵향 담은 부채' 전시회를 갖는다.

을 준다. 하수정 작가는 국전에서 서예부분에 특선을 받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으며, 유대수 작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판화가페대수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식 선자장은 2015년 국가무형문화재 첫 번째 선자장으로 지정, 합죽선 작품을 보전, 전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화선 선자장은 2010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 현재 '방화선부채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전주 한옥마을 부채문화관에서 진행되는 '호생관 최북 선면화' 교류전으로 최북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최북미술관이 소장한 최북(조선후기 화가의 산수도(山水圖, 영인본)과 설경산수도(雪景山水圖, 영인본)는 최북 특유의 독특한 구도가 담긴 2점의 선면화 작품이다. 무주군시설사업소 김경복 소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한국화가와 부채 문화재인 선자장의 수준 높은 부채 작품을 이번 기회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지역과 기관간의 교류를 위한 교두보 전시로 향후 양 기관이 협력하는 지속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제주교류전 '이음과 닿음'展 제주서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21일까지 제주시 제주물문화공원 오백장군켄터리에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과 공동으로 전주×제주교류전인 '이음과 닿음'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제주교류전은 시각예술 전주문화재단의 국내교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주 문화예술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교류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두 번째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시각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양 지역이 이어지고, 예술 교류를 통해 교감하고 연대하는 마음이 닿아 그 다음을 내다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특히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주의 중견작가 6인과 제주 작가 3인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전주에서는 △김두해 △김선강 △김철규 △류재현 △여은희 △진광영 작가가, 제주에서는 △박주우 △이현태 △조기섭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이음과 닿음' 전시를 통해 서양화, 한국화, 섬유미술, 영상 등 두 지역 중견 시각 작가의 20여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김정경 문예진흥원장은 "시각작가들이 만나 서로 교류하고 작품세계를 조망해 보는 전주×제주 교류전은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의미 있는 예술교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지역 교류를 더욱 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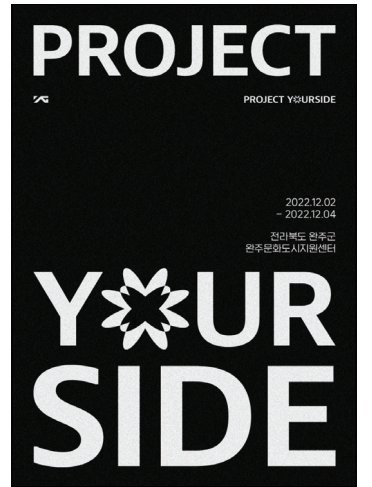
gallery숍 공감-공유 '이승진 개인전'

이승진 개인전이 '쉽'이라는 전시명으로 오는 5~17일까지 gallery숍에서 개최된다. gallery숍의 '공감-공유'는 전시공간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작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이는 개성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려는 gallery숍의 의지다. 작가에 따르면 '쉽'이란 사람마다 생김새, 옷차림, 생각이 다르듯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각자의 시간을 거쳐 자신을 찾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현대인들이 진정한 자아의 '쉽'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작품을 보여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영감을 얻는 것과 같이 자연 속에서 흐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자신만의 '쉽'을 찾아가길 바래 본다. /장은성 기자

YG 첫 번째 사회공헌 사업 완주서 열린다

2~4일 가수 선 토크콘서트·스우파 YGX 댄스워크숍 등 진행

우리나라 대중음악 분야를 대표하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 그 첫 번째 지역으로 완주를 찾는다. 2일부터 4일까지 완주군 삼태읍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YG WITH 캠페인-프로젝트 유어사이드(PROJECT YOURSIDE)'가 열린다.



'선행의 아이콘' 가수 선의 토크콘서트와 '스트릿우먼파이터' 화제의 댄서 크루 YGX의 댄스워크숍, YG의 음악을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음악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프로젝트 유어사이드'는 수도권에 집중된 대중문화 콘텐츠 경험과 기회를 지역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문화행사로 'YG WITH 캠페인' 리뉴얼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22년 'LET NOBODY BE ALONE(let nobody be alone)'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앞세워 'YG WITH 캠페인'을 리뉴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예고했다. YG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공동체문화도시로 지정된 전라북도 완주에서 진행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리뉴얼된 프로젝트인 만큼 옛 가치를 재생한 완주의 공간에 적합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완주군과 문화도시의 가치와 철학에도 완벽상통한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직접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만큼 완주는

물론 인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선도적인 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YG WITH 캠페인'은 YG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문화 선도 기업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보답하고자 마련한 사업 공헌 캠페인으로 2009년부터 앨범·상품·공연 등의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각종 크고 작은 기부와 지속적인 봉사활동, 사회 공헌 사업으로 나눔 문화에 앞장서 왔다. /원주=이중복 기자

주크박스 뮤지컬 '미인' 16일 정읍서 공연

한국 대중음악 살아 있는 전설 신중현 명곡으로 이뤄져

정읍시는 오는 16일 저녁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우수작 초청공연 뮤지컬 '미인' 공연을 선보인다. 뮤지컬 '미인'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공모한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된 작품이다. '미인'은 전 국민의 히트곡인 미인을 비롯해 남아, 봄비, 빗속의 여인, 아름다운 강산 등 한국 대중음악의 살아 있는 전설 신중현의 주옥같은 명곡으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극장 하류권을 배경으로 신중현의 강렬한 음악과 맑은 아름다운 청춘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연에서는 억압 속 희망을 노래하는 인물들의 심리 묘사와 풍성한 편곡, 감각적인 안무에

매력적인 배우가 더해져 깊은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7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 좌석 8천원이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학생(초·중·고·대)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를 통해 6일 오후 2시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1인당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